

‘천적’은 바뀐다...타이거즈, 만원 관중 앞서 ‘곰 사냥’

KIA, 두산전 9-3 승...첫 시리즈 2승1패
5이닝 무실점 윤영철 승리투수
서건창 2루타 등 3안타 2타점



KIA 타이거즈가 ‘천적’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낚았다.

KIA가 지난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즌 3차전에서 9-3 승리를 거뒀다. 전날 0-8 영패를 당하면서 ‘4’에서 연속 질주를 멈췄던 KIA는 두산과의 첫 시리즈 마지막 대결에서 다시 승리를 적립하면서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두산 광빈을 상대로 2024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선 윤영철이 5이닝 3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1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서건창은 2루타 포함 3안타 행진 속 2타점도 기록하면서 승리에 기여했다.

윤영철이 1회를 11개의 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첫 타자 정수빈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은 뒤 허경민은 3루 땅볼로 아웃시켰다. 라모스의 타구는 2루수에게 잡혔다.

2회 선두타자 김재환을 우전 안타로 내보낸 윤영철이 양석환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시즌 첫 탈삼진을 뽑아냈지만 강승호에게 다시 우전 안타를 내줬다. 윤영철은 1사 1·2루에 몰렸지만 김민혁과 안승환을 상대로 연달아 헛스윙 삼진을 유도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3회 첫 타자 박계범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윤영철은 정수빈과 허경민은 각각 투수 땅볼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삼자범퇴 이닝을 기록했다.

윤영철은 4회 2사에서 양석환에게 볼넷을 내준 뒤 강승호에게 중전안타도 허용했지만, 김민혁을 유격수 플라이로 잡으면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안승환-박계범-정수빈을 상대한 5회에는 삼자범퇴. 박계범과는 10구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만들면서 이날 5개의 탈삼진을 뽑았다.

윤영철로 초반 싸움을 한 KIA는 5회 광빈 공략에 성공했다. 서건창이 공격을 이끌었다.

2사에서 서건창이 득점의 시작점이 됐다. 서건창이 두산 선발 광빈을 상대로 좌전 안타를 만들어낸 뒤 도루로 2루까지 갔다. 한준수의 볼에



지난 3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경기에서 KIA 선수들이 경기 끝난 뒤 코치진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맞는 볼로 2사 1·2루, 최원준의 좌전안타가 나오면서 서건창이 홈에 들어와 ‘0’의 균형을 깼다.

이어 박찬호의 타구가 좌익수 김재환 앞에 떨어지면서 한준수와 최원준이 홈을 밟았다. 3-0으로 앞선 7회에도 서건창이 공격 전면에 섰다.

광빈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이병헌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낸 서건창이 한준수의 좌측 2루타로 3루로 향했다. 최원준이 1루 땅볼을 기록하면서 발

이 뒀던 서건창은 세 번째 투수 최지강이 연달아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면서 밀어내기 득점에 성공했다.

서건창은 4-0으로 앞선 8회 2루타로 멀티히트에 성공했다. 아우성의 볼넷에 이어 김선빈의 좌측 2루타가 나오면서 5-0이 됐다.

두산 투수가 김민규에게 김호준으로 교체됐고, 서건창은 바꾼 투수를 상대로 우측 2루타를 만들면

서 멀티히트와 함께 타점도 만들었다. 서건창은 박찬호의 대타 김호령의 적시타로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도 기록했다.

7-1에서 KIA의 마지막 공격이 진행됐다. 소크라테스의 좌중간 2루타로 시작한 9회초, 이우성, 김선빈에 이어 서건창이 3연속 안타이자 이날 경기의 세 번째 안타를 날리면서 2점을 보탤 때

KIA는 9회말 마운드에 오른 김대유가 김민혁에

게 투런포를 맞는 등 1사 만루의 위기도 맞았지만 황동호로 급한 불을 끄면서 9-3승리를 완성했다. 지난 시즌 두산을 상대로 4승 12패, 열세를 기록했던 KIA는 첫 대결에서 2승을 수확했다.

한편 KIA와 두산의 시즌 첫 ‘단군매치’가 전개된 잠실에는 3연전 내내 만원관중(2만3750명)이 입장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선취골 넣고도 ‘대구징크스’ 못꿨다

대구FC에 1-2 역전패 당해
빛바랜 ‘루키’ 문민서 데뷔골

2017년 3월부터 대구전 ‘홈 무승’



‘루키’의 데뷔골에도 광주FC가 ‘대구징크스’ 탈출에 실패했다.

광주FC가 지난 3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K리그1 2024 4라운드 경기에서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문민서가 프로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했지만 웃지 못했다.

전반 2분 만에 대구의 코너킥 상황이 펼쳐졌다. 세징야가 키커로 나서 오른쪽에서 띄운 공이 김진혁의 머리로 향했고, 헤더까지 이어졌다. 광주 수문장 김경민이 골대로 향하는 공을 막아내면서 실점을 막았다.

다시 전개된 대구의 코너킥, 이번에도 세징야에서 시작된 공세가 김진혁의 머리를 거쳐 김강산에게도 향했다. 이번에도 위력적인 헤더가 나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전반 4분 광주가 첫 공세에 나섰다. 두현석이 왼발로 슈팅을 날렸다. 공이 골키퍼 오승훈에 안기면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이날 광주의 첫 유효슈팅이 기록됐다.

전반 20분 이희군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이희군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로 진입한 이희군이 백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이어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프로 데뷔전을 치른 ‘루키’ 문민서가 대구 골대 앞에 섰다.

문민서는 왼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를 피해 오른쪽으로 골대 오른쪽을 뚫으면서 데뷔전에서 데뷔골

을 기록했다.

전반 27분에는 이희군이 최경록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 슈팅을 날려 상대 골키퍼를 움직이게 했다. 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최경록이 띄운 공이 포포비치의 헤더가 연결했지만 골키퍼를 넘지 못했다. 포포비치는 전반 41분에도 헤더를 시도했지만 공이 골대 옆을 살짝 벗어나 아쉬움을 샀다.

4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1-0으로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전반 추가 시간 집중력이 아쉬웠다.

광주 전역에서 대구의 공격이 전개됐고, 공을 다룬 요시노가 오른쪽으로 광주의 골대 오른쪽을 뚫으면서 1-1이 됐다.

원점에서 후반전이 시작됐고, 두 팀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후반 6분 광주가 상대 역습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았지만 바셀루스가 공을 놓치면서 한숨을 돌렸다.

바로 이어 이희군이 좌측에서 상대 수비진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까지 진입했지만 슈팅까지 시도하지는 못했다.

두 팀은 이후 빠른 스피드로 공세를 주고받았다. 후반 21분 골키퍼 김경민이 고재현의 슈팅을 안으면서 대구의 공세를 막았다.

후반 29분 광주 벤치에서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엄지성이 왼쪽에서부터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전개한 뒤, 오른쪽에 있던 가브리엘에게 공을 넘겼다. 가브리엘의 오른쪽 슈팅이 이어졌지만 옆그물에 맞았다.

이어 진행된 대구의 공격에서 광주가 역전을 허용했다. 세징야가 왼쪽에서 길게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 있던 에드가가 몸을 날려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는 승점을 위해 공세에 나섰다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후반 35분 가브리엘의 벼락같은 슈팅이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후반 39분 이민기가 오른쪽에서 공



지난 3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대구FC와의 K리그1 2024 4라운드 경기에서 광주FC 문민서가 전반 24분 선취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을 잡아 베카에게 공을 넘겨줬지만 공은 높게 골대 위로 땀다.

후반 추가 시간 프리킥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머리로 골을 노렸지만, 공은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됐다. 경기 종료 직전 허울의 헤더도 골대를 가르지 못하면서 광주는 2017년 3월 이후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계속된 ‘무승’ 고리를 끊지 못했다.

앞선 포항전에 이어 연패를 기록한 이정호 감독은 “홈팬들이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실력이 없어서 썼으니 인정하고 실력을 더 키워야 한다. 경기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팀과 나란히 과대평가한 것 같다는 것이다. 우리 수준

에 맞는 순위를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자평했다.

문민의 골에 대해서는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 신인고 데뷔전이었지만 싸수가 있는 선수로서 성장을 위해 키커로 지정했다. 못 넣으면 내 탓이니까 문민서 성장을 위해 지정했다”며 “데뷔골도 넣고 좋은 추억인데, 추억을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패배를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는 7313명이 입장해 광주 축구 인기를 보여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챔스필드 토요일 홈경기
어린이팬 무료투어 실시

KIA, 만7세~12세 대상
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KIA 타이거즈가 토요일 홈경기마다 어린이 팬을 대상으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투어를 연다.

KIA는 31일 “올 시즌 토요일 홈경기마다 어린이를 위한 챔피언스 필드 투어를 마련했다”며 “2024 KIA 타이거즈 키즈 클럽을 포함한 만 7-12세 어린이 팬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챔피언스 필드 투어는 무료로 진행되며 ▲그라운드 체험 ▲선수단 훈련 관전 ▲챔피언스 필드 시설 투어 ▲볼펜가 체험 ▲역사관 견학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일반 팬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실내연습장, 웨이트 트레이닝실 체험도 할 수 있다.

챔필 투어 신청은 경기 1주일 전 앱을 통해 이뤄진다. 올 시즌 첫 투어 행사 참가를 원하는 이는 4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단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IA는 신청자 중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4월 3일 오후 3시 이후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된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없이 구단 관계자의 인솔 아래 투어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